

아토피피부염에서 국소 도포제의 사용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김 범 준

아토피피부염은 만성 재발성 피부질환으로 주로 영아와 소아에서 관찰되는 심한 소양증을 특징으로 한다. 아토피피부염의 임상양상은 매우 다양하며, 개인차는 물론이고 지역과 인종, 연령에 따른 임상양상의 차이가 관찰된다. 아토피피부염의 유병률은 과거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성인형 아토피피부염 발생 증가와 함께 과거와 달리 나이가 들어도 호전되지 않는 아토피피부염이 과거에 비해 더 늘어나고 있다.

아토피피부염의 치료는 초기에 질병의 병력, 범위 및 중증도에 대한 분석과 심리적인 측면 및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치료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토피피부염의 초기단계의 치료는 피부 보습을 위해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가 악화 인자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미 진행된 상태라면 급성기 병변의 조절을 위해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증상의 완화 시에는 약한 강도의 스테로이드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적절한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제안한다. 타크로리무스나 피메크로리무스와 같은 국소 calcineurin 억제제는 calcineurin을 억제함으로써 활성화된 T 세포와 다른 염증세포들에서 염증을 매개하는 시토카인의 전사를 억제하여 작용하는데, 스테로이드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소 부작용이 없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아토피피부염 치료 약제로 판명되었다. 감염은 질병의 경과를 바꿀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세균, 진균 또는 바이러스성 피부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염증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철저한 진단과 함께 가능한 빨리 적절한 항생제, 항진균제 혹은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하다. 연자는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있어 보습제, 스테로이드제, calcineurin 억제제, 항생제 및 자외선 차단제의 올바른 국소 사용법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